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제 혜택 1년 연장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5년만에 부활 양도세·중부세 등 배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무안 등 특별재난지역 특례 제공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폐지된 단기임대주택 및 세제 혜택을 5년만에 재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또 임직원 할인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를 2년 내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환수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도입될 의무임대기간 6년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법인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세율 20%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세제 혜택 적용 조건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면적 기준 149㎡ 이하이며, 매입형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의무 임대기간 10년짜리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완화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판매 시 양도세로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 방침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근무 기업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재판매하는 경우 적발 시 소급 과세한다.

자동차와 대형가전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자동차, 가전 등 대기업에서는 임직원 복지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역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

로 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무안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특례 지원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액 채납 방지를 위해 국세·관세 등 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 채납기간 기준도 삭제된다. 채납액을 5000만원 이하로 유지한 채 최근 1년간 출국을 지속해오던 고액 채납자들의 '꼼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수출 감소 지속...지역경기 악화일로

한은 광주전남본부 실물경제 동향 소비심리지수 악화·수출액 감소

지난해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와 수출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수출의 경우 자동차 및 화학공업 등 지역 주력 산업들이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04.0으로 전년 동월(105.9) 대비 1.8%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각각 2.1%, 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94.8에서 86.8로 8.4%감소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역 내 대형소매점 소비 기준점인 100을 한참 하회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소비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지난해 11월 기준 653억원으로 전년 동월(705억원)에 견줘 52억원(7.3%)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소비 의향을 예상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하락했다는 점에서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79.1로 전월(91.1)보다 12.0포인트(p) 하락했다. 기존에도 기준점(100)에 못미쳤던 만큼,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비판적이었던 데다 고물가 장

기화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수출 역시 지역이 주력으로 삼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417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월(5810만 달러) 대비 28.3% 줄었다. 수출액 감소에는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류(-32.4%)를 비롯해 전기장비·전자부품(-34.5%) 등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경우 일평균 수출액이 1년새 1억 6910만달러에서 1억 4280만달러로 15.5% 감소했다. 전남 역시 주력 산업인 화학공업제품(-33.5%)와 석유제품(-24.1%)가 모두 1년전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5000개 줄어

엔데믹 이후 방역 일자리 감소 영향

지난 2023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5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방역부문 공공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 3000개로 전년(287만 8000개) 대비 5000개(0.2%)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맞춰질수록 상승해왔지만, 지난 2023년 코로나 19 엔데믹과 함께 방역부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7년만에 감소했다.

업체별로 공기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 기준 41만 4000개로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 9000개로 전년대보다 5000개(0.2%)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0.0%로 전년(10.2%)에 견줘 0.2% 하락했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148만 1000개로 1년 전보다 8000개(0.6%) 줄었고, 여자는 139만 3000개로 4000개(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공공부문 일자리가 1년새 2만 4000개 줄었고, 40대(-7000개)도 감소했다. 반면 30대(1만 4000개), 60세 이상(8000개), 50대(6000개), 30대(2000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신학기 책가방 미리 장만 하세요" 16일 광주신세계 '리틀 그라운드' 팝업 행사장에서 아이가 가방 등을 착용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키즈 컬렉션인 '리틀 그라운드' 팝업을 진행한다. 이번 팝업에는 '보보쇼츠', '윙큰', '타오', '롤라비' 등의 브랜드들이 책가방과 의류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올해 소비 트렌드는 'REVIVE'

신한카드 5가지 키워드 제시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REVIVE(리바이브)'를 16일 제시했다.

'REVIVE'의 머리글자에 따른 5가지 세부 키워드는 '페스티벌 코어(Redefine Festivities)', '셀프 디깅(Exploring Identity)', 'AI네이티브(Virtual Companions)', '콘텐츠 커머스(Integrated Contents Commerce)', '다정력(Value of Tenderness)', '기후 이코노미(Environment First)' 등이다.

먼저 '페스티벌 코어'는 물질 소비보다 경험 소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뮤직페스티벌이나 작은 지역 축제를 찾아다니고 국제도시전이나 야구장 등을 찾아 일상 속 이벤트를 즐기는 여가문화를 말한다.

'셀프 디깅'은 외모, 건강, 심리, 운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잘 알기 위한 분석이 유행하면서 유전자나 심리 검사, 퍼스널 컨설팅, 생활기록부 열람 등 자기전단이 다양해지고 사주나 타로를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AI네이티브'는 인공지능(AI)이 익숙해지면서 AI를 창작과 교감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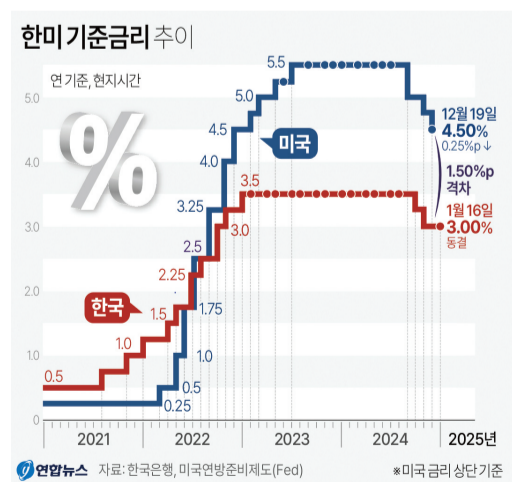
'콘텐츠 커머스'는 콘텐츠 영향력이 소비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말하며, '다정력'은 불안 심리와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일상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현상을 말한다.

신한카드는 기후 변화가 일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 결정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3% 동결...“환율 불안·정치적 리스크 작용”

지난 4분기 성장률 0.2% 밀돌수도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부터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3년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연준(FED)의 통화 정책 및 추가경정예산 여부를 살펴보는 등 금통위는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대폭 뛰었고, 고물가는 장기화 되는 데다 외환시장 및 경제전망 역시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에 앞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묶었지만, 한은은 12·3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당연한 결정이다"면서도 "소비·건설경기 등 내수지표가 한은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TP, 2025년 IP창업존 1기 교육생 모집

31일까지...예비·초기창업자 교육

전남테크노파크가 도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발명가,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5년 IP창업존(Zone) 1기'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월 4일부터 4일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진행되는 '2025년 IP창업존 1기' 교육은 특허청과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지역 유일의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및 창업 전문가를 통해 창업의 기초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기존의 창업 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생이 보유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와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는 보유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특허 관리, 3D제품 설계·출력, 창업 유관기관 연계 등 후속 사업도 지원한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발명가 및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가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및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부·농협 18~29일 설맞이 한우 할인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29일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1천800여곳에서 한우 할인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소프라이즈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고,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위해 마련된 소비 촉진 행사다.

매장별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행사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고 등급은 1+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000~7620원이고 양지는 3300~4660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면 20~40% 저렴하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라이블리는 한우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10만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은 114.7으로 작년보다 12.5% 늘었다.

/연합뉴스

국가 임시공휴일 지정 27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휴장

오는 27일이 국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도 휴장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7일 증권시장(주식시장·ETF·ETN·ELW시장·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수익증권시장·채권시장(Repo포함))과 KSM(KRX Startup Market) 시장이 휴장한다. 또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시장도 휴장 대상이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원화IRS·달러IRS) 청산 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7.49 (+30.68)
↑ 코스닥	724.24 (+12.63)
↓ 금리(국고채 3년)	2.626 (-0.049)
↓ 환율(USD)	1455.65 (-5.55)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